

종합건강검진 수진자의 소화성궤양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중앙병원 내과
정훈용 · 민영일

= Abstract =

Peptic Ulcer in 44,213 General Health Examinee

Hwoon-Yong Jung, M.D., Young Il Min,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Peptic ulcer is very common but frequently asymptomatic disea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the peptic ulcer in Korean general health examinee.

Methods

A total of 44,213 general health examinee received gastroscopy at General Health Promotion Center at Asan Medical Center between July 1990 and June 1995 were analyzed.

Results

Of 44,213, 4,477 (10.1%) had peptic ulcer: 963 (2.2%) gastric ulcer, 3,196 (7.2%) duodenal ulcer. Sex-specific prevalence of peptic ulcer was 13.2% in male and 4.6% in female. Age-specific prevalence in the 2nd, 3rd, 4th, 5th, 6th, 7th, and 8th decades was 5.8%, 8.0%, 8.8%, 10.7%, 10.7%, 10.2%, and 12.9%, respectively. According to ulcer stages by Sakada, 835 (18.7%) were in active, 990 (22.1%) in healing, and 2,652 (59.2%) in scar stage. The prevalence of peptic ulcers having ulcer crater was 4.1% of 44,213 examinee. Sixty-five percent of gastric ulcers was in active or healing stage, while 70% of duodenal ulcers was in scar stage.

Conclusion

The prevalence of peptic ulcer in Korean general health examinee was 10.1%, and that of peptic ulcer in active or healing stage was 4.1%.

Key Words : Prevalence, Peptic ulcer, General Health Examination

I. 서 론

상부위장관에 발생한 소화성궤양은 증상이 다양하며, 자각증상 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고 또한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과거에 비하여 출혈, 천공, 폐색 등 합병증의 빈도가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소화성궤양에 의한 출혈로 인하여 국소요법이나 수술적 치료법을 요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본다^{1,3)}. 그러나 내시경검사용 기기의 발달과 내시경수기의 발전으로 인하여 개복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감소된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다^{1,2)}.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에서의 소화성궤양의 빈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각증상이 비교적 경미한 종합건강검진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소화성 궤양의 발견 빈도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990년 7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건강검진을 위하여 본원 종합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수진자 중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44,21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의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남녀비는 1.8:1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5.2세(16-90세)였다. 대상 수진자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가장 많았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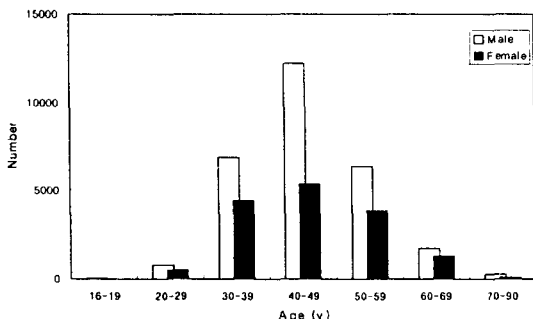


Fig. 1. Age and sex distribution of 44,213 persons

궤양의 생활사에 따른 분류는 Sakada의 분류를 이용하여 활동기(active stage), 치유기(healing stage) 및 반흔기(scar stage)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내시경 검진 당시에 궤양의 분화구가 있는 경우를 치료가 필요한 활동궤양으로 정의하여, 생활사의 활동기와 치유기가 포함되었다.

III. 결 과

1. 소화성궤양의 발견빈도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44,213명 중 4,477예(10.1%)에서 소화성궤양의 소견을 보였는데, 양성 위궤양 소견만 있었던 예는 963예(2.2%), 십이지장궤양은 3,196예(7.2%), 그리고 위,십이지장 혼재궤양은 318예(0.7%)로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의 비율은 1:3.3이었다. 남자에서는 13.2%, 여자에서는 4.6%의 소화성궤양의 빈도를 보여 남자에게 더 많았다(Fig. 2.). 소화성궤양의 빈도를 연령특이적(age-specific prevalence)으로 분석하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각각 5.8%, 8.0%, 8.8%, 10.7%, 10.7%, 10.2%, 및 12.9%였다. 십이지장궤양의 경우는 10대부터 70대 이후까지 6-7%로 연령에 관계없이 일정한 빈도를 보였으나, 위궤양은 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3.). 총 4,477예의 소화성궤양 중 반흔기의 궤양을 제외하고 궤양의 분화구를 관찰할 수 있는 궤양의 빈도는 1,825예로 44,213명의 대상자 중에서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위궤양과 십이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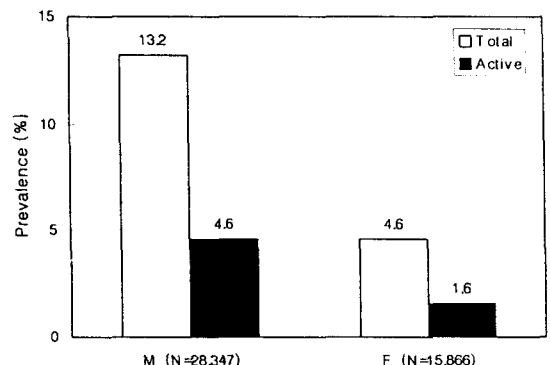


Fig. 2. Prevalence of peptic ulcer according to s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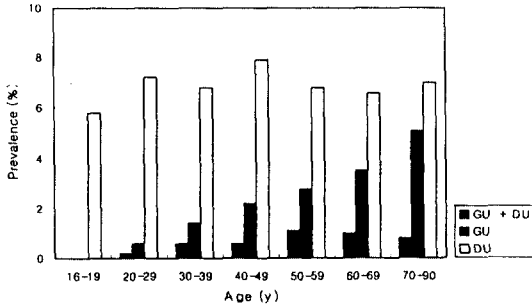


Fig. 3. Age-specific prevalence of peptic ulcer in 44,213 per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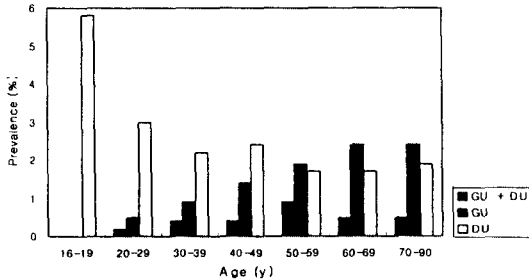


Fig. 4. Age-specific prevalence of peptic ulcer with crater in 44,213 per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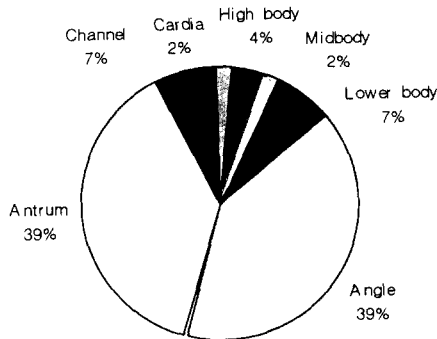


Fig. 5. Location of gastric ulcer

궤양의 비율은 1:1.6이었다. 즉 십이지장궤양은 젊은 연령층에게 호발하고 위궤양은 나이가 들수록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4.).

2. 양성위궤양

963예의 양성위궤양은 남녀비가 6.1:1이었고, 활동기, 치유기 및 반혼기가 각각 24.2%, 41.1% 및 34.7%이었다. 위궤양이 발생한 부위별로 분석을 하였을 때, 위각부와 위전정부가 각각 39%로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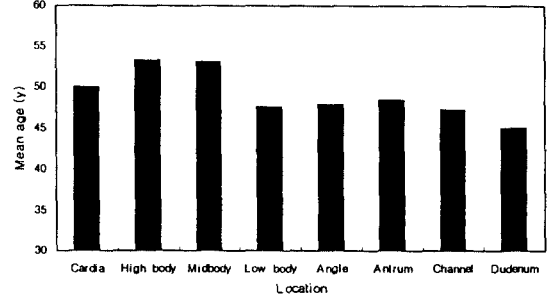


Fig. 6. Mean age of peptic ulcer according to the location

Table 1. Stages of 4,477 peptic ulcers

	GU*	DU**	Combined*	Total
Total(%)	963(2.2)	3,196(7.2)	318(0.7)	4,477(10.1)
Stage				
Active(%)	233(24.2)	485(15.2)	117(36.8)	835(18.7)
Healing(%)	396(41.1)	477(14.9)	117(36.8)	990(22.1)
Scar(%)	334(34.7)	2,234(69.9)	84(26.4)	2,652(59.2)

* Gastric ulcer

** Duodenal ulcer

+ Combined ulcer means gastric ulcer and duodenal ulcer

을 차지하였다(Fig. 5.). 각 부위별로 발생한 궤양의 평균연령을 보면, 분문부와 체상부에 발생한 궤양의 경우가 체하부, 위각부 및 전정부에 발생한 궤양에 비해 평균연령이 높았다(Fig. 6.).

3. 십이지장궤양 및 혼재궤양

십이지장궤양 3,196예 중에서 남녀비는 4.6:1이었고, 활동기, 치유기 및 반혼기가 각각 15.2%, 14.9% 및 69.9%이었다. 위,십이지장 혼재궤양 318예 중에서 남녀비는 15.3:1이었고, 활동기, 치유기 및 반혼기가 각각 36.8%, 36.8% 및 26.4%이었다(Table 1.).

IV. 고 찰

소화성궤양은 외래진료시 비교적 흔히 경험하는 질환 중의 하나로서, 비록 사망율이 낮지만 이러한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소화성궤양의 발견 빈도는 우리나라에서는 6.8%로부터 19.3%까지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으나^{4,5)}, 조사 대상의 선정, 조사기간, 검사자의 관점 및 의학적 관심에 따라 매우 그 범위가 넓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증상 혹은 무증상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10.1%의 발견 빈도를 관찰하였다. 궤양의 분화구를 관찰할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한 활동궤양의 빈도는 4.1%로 전체 소화성궤양의 40.8%를 차지하였다. 치료가 필요치 않은 궤양이 60%나 차지하는 것은 특히 십이지장궤양의 경우 반혼기의 궤양이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하면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들은 무증상인 경우로부터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내원하는 경우까지 다양하여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궤양의 발견 빈도가 이번의 결과에 비하여 다소 낮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위궤양의 빈도가 월등히 많았으나^{6,8)}, 1980년대 이후 내시경의 보편화로 인하여 반혼기의 궤양이 진단되기 시작하면서 위궤양에 비하여 십이지장궤양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4,5,9)}, 또한 사회적 및 경제적 변화도 이러한 추이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위궤양 2.2%, 십이지장궤양 7.2%로 십이지장궤양이 3.3배 많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주로 반혼기의 위궤양(34.7%)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반혼기의 십이지장궤양(69.9%)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소화성궤양의 빈도는 2.9:1로 남자에게 많았는데, 이는 다른 보고자의 경우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6,9-11)}. 그러나 과거에 비하여 남녀비가 감소한 것은 최근들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한 것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십이지장궤양이 10대 이후로 고령층까지 비슷한 빈도를 보인 반면, 위궤양은 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십이지장궤양의 경우에는 비교적 젊을 때에 주로 발생하여 재발과 호전을 반복하게 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산 분비능력이 감소하여 새로이 진단되는 경우가 적어지나¹²⁾, 이에 비하여 위궤양의 경우에는 재발성 궤양이 적고,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등에 의한 약제성 궤양의 빈도가 증가하여¹³⁻¹⁶⁾ 전반적인 발견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종합하면, 비교적 경미한 증상을 가지거나 무증상인 종합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결과 소화성궤양의 발견 빈도는 10.1%이었으며, 우리나라의 건강한 사람들의 소화성궤양의 빈도를 알기 위해서는 증상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V. 요 약

1990년 7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건강검진을 위하여 본원 종합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사람 중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받은 44,213명을 대상으로 소화성 궤양의 발견 빈도와 연령별 및 성별 분포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44,213명 중 4,477예(10.1%)에서 소화성궤양의 소견을 보였는데, 양성위궤양 소견만 보였던 예는 2.2%, 십이지장궤양은 7.2%, 그리고 위,십이지장 혼재궤양은 0.7%였다.
2. 성별로 분석하였을 때, 남자는 13.2%, 여자는 4.6%의 빈도를 보였다.
3. 연령특이적 소화성궤양의 빈도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각각 5.8%, 8.0%, 8.8%, 10.7%, 10.7%, 10.2%, 및 12.9%였으며, 십이지장궤양은 연령에 따른 빈도의 차이가 없었으나, 위궤양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 위궤양은 65.3%가 활동성 혹은 치유기의 궤양이었으나, 십이지장궤양은 70%가 반혼기의 궤양이었다.

REFERENCES

1. 송인성: 소화성궤양의 합병증과 대책. 대한내과학회잡지 1987;33:423-428.
2. 정영화, 양석균, 민영일: 노출혈관을 동반한 소화성궤양 출혈 환자에 대한 레이저 지혈 요법. 대한소화기병학회잡지 1990;22:791-796.
3. 유국선, 윤대성, 조홍래 등: 합병증을 동반한 소

- 화성궤양의 임상적 고찰. 대한소화기병학회잡지 1992;24:6-12.
4. 이은경, 강진경, 임대순 등: 최근 10년간 상부소화관내시경으로 진단된 소화성궤양의 변모. 대한내과학회잡지 1987;32:31-40.
5. 정선묵, 정현용, 김연길, 김영건, 이복희: 소화성궤양의 내시경적 관찰. 대한소화기병학회잡지 1984;16:357-364.
6. 신순현, 한심석: 위질환에 있어서 위산도, 위내시경 소견 및 위 X-선 소견에 관한 임상적 관찰. 대한내과학회잡지 1971;14:641-645.
7. 홍순표, 김형식, 이강수, 노방수, 정진각, 오현관: 위내시경 1,240예에 대한 임상적 관찰. 대한내과학회잡지 1981;24:817-824.
8. 박경남, 김영호, 홍진숙 등: 위내시경을 이용한 위질환 고찰. 최신의학 1971;14:49.
9. 김성철, 박헌진, 안정기, 이현영, 김영건, 이복희: 위내시경으로 진단된 소화성궤양 환자 1501명에 대한 임상적 관찰. 대한소화기병학회잡지 1988;20:537-544.
10. 오인혁: 위궤양의 위내시경 소견에 관하여. 대한내과학회잡지 1976;19:21-26.
11. 손병옥, 채영석, 조영철, 이상무, 도사금: 위내시경검사에 의한 각종 위질환 895예에 대한 임상적 관찰. 대한내과학회잡지 1979;22:101-106.
12. Permutt RP, Cello JP: Duodenal disease in the hospitalized elderly patient. Dig Dis Sci 1982;27:1-6.
13. 김용길, 유창근, 박태정 등: 위궤양 305예와 십이지장궤양 226예에 대한 임상적 관찰. 대한내과학회잡지 1984;27:590-596.
14. Piper DW, Nasiry R, McIntosh J, Shy CM, Pierce J, Byth K: Smoking, alcohol, analgesics, and chronic duodenal ulcers. A controlled study of habits before first symptoms and before diagnosis. Scand J Gastroenterol 1984;19:1015-21.
15. 김재광, 정인식, 안병민 등: 소화성궤양 1,179예에 대한 역학적 및 내시경적 고찰. 대한내과학회잡지 1990;39:165-173.
16. 이상기, 김익현, 신기영, 최우근, 문성채, 허윤: 노인성 위궤양의 임상적 고찰. 대한소화기병학회잡지 1982;14:31-38.